

었다.

(여기서發見된接着用材인 剛灰와 白土 및 砂土의 成分은 國立地質研究所에 依頼하여 分析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連繫方法과 아울러 注目을 곤졌은 下部에서 發見된 嵌石의 存在였다. 規則的은 아니나 한층 진내 한개씩 配置되어 있는 이 嵌石은 五尺内外의 長을 갖고 있어서 뒷부리가 積心 積속이 들어가 묻혀 있었다. 이와 같은 樣式은 石窟庵 洞窟의 架構平法에서 보이는 것과 그目的이 同一한 것으로 補強目的으로 使用되기에 가장 適合한 方法이다.

차츰 解體가 進行되어 내려감에 따라 礎石의 밑 基礎狀態가 들어나기 始作하였는데 長台石(不磨石)을 攄직이 攄직 잇매겨 쌓아 놓았다. 隅柱와 平柱의 礎石基礎는 大差가 없었는데 特別 注目을 곤졌은 基礎위에 何等의 加減裝置 없이 礎石을 固定시켜 그 높이를 水平잡았다는 點이다. 全礎石의 基準線(水平) 높이에서 一·五寸 内外의 들쭉 낙속이 礎石마다에 強要되어 있었으나 이는 礎石·長台石基礎의 沈下라고 判斷하기 보다는 오히려 礎石과 長台石이 한 몸이 되어 갈아 앉았다고 봄이 妥當할 듯하다.

石架解體時 느린 점은 解體된 部分만으로 보면 部分補修가 全缺 없었던 듯하다. 단지 左右 石階의 밑부분만은 後에 손질이 있었다는 證據가 보이지만 餘他部分의 積心土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쌓여져 있었다. 이로 미루어 推定한다면 木部는 屢代에 걸쳐 重修되었지만 石架部는 補修가 施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옳겠는데 出土 遺物을 檢討하여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各種出土 遺物을 모두 採取하여 保管하고 있는데 이들중에는 石架의 木部와 같이 太祖代에 築造되지 않았음을 立證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石架의 年代考證은 앞으로 더 考察되어야 되리라 생각한다.

刊 行 物

「美術資料」(第四輯)國立博物館刊 內容

金基昶·李朝虎圖展示作品小考

李慶成·書畫協會創立前後

第三卷 第八號 通卷二十五號

鄭 圭·分院周邊의 民窠

金元龍·春川泉田里의 支石墓積石塚

樞本龜次郎·王根墓調査報告

尹武炳·南大門解體部材에 對한 調査報告概要

「歷史教育」(第六輯) 歷史教育研究會刊 六月十日 發行

鄭永鎬·寧越郡酒泉·武陵里의 佛蹟調査

「史學研究」韓國史學會刊

姜萬吉·朝鮮前期工匠考(十二號)

鄭海昌·高達寺址浮圖와 碑文에 關하여(十三號)

「歷史學報」(十九·十八合輯) 金岸基教授 還曆紀念論文集二十八篇七一七面。

歷史學會刊. 考古美術論文으로서는 本誌前號에 紹介한 三篇外에 韓大善氏(G.Henderson)의 「干支銘을 가진 高麗青磁」 閔泳桂氏 「新羅與德王陵斷石記」가 있다.

있다.

卍—스續

1. 서울文理大 考古人類學科 金元龍氏는 美國、歐洲、近東地方의 考古學研究 所 및 主要遺蹟을 觀察하기 위하여 七月九日出發、九月九日 歸着한 豫定 이다.

— 第三卷 第八號 通卷二十五號 —

서울大圖 書館所藏 傳恭愍王筆 天山大獵圖

崔 泳 喜

高麗의 恭愍王筆이라고 傳하는 「天山大獵圖」가 國立博物館과 德壽宮 美術館에 各各一幅씩을 所藏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나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에도 所藏하고 있는 것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 畫面은 二二·〇 cm × 二三·五의 極小形斷片을 圓形 額에 넣은 것인데 圖書館에 收藏된 記錄을 보면 元來 光山 金長生(號 沙溪 官、刑曹參判 西一五四八一—一六三一) 先生 後孫집에서 傳來하여 오던 것으로서 倭政時 日人 森悟一에게 넘어갔다가 同人에 依하여 一九三

四年에 收納된 것으로 되어 있다.

畫面은 絹本着色의 細密한 彩畫로서 三人의 騎馬人物이 노루인지 사슴인지 뒤고 있는 動物을 中心으로 左, 右, 後面에서 追擊하고 있다.

左後의 人物은 各各 화살을 쏘은 동개를 佩하고 활을 들었고, 右側의 人物은 긴 막대기 같은 것만을 들었는데 接近한 動物을 막 후려치려는 光景이다.

畫面이 甚히 剝落되어 무슨 絹地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畫面이 鮮明치는 못하나 極히 精緻巧雅하며 堅實한 筆力으로 보인다.

前記 國立博物館, 德壽宮美術館의 것은 모두 絹本着彩이며 그 筆意가 서로 一致하여 兩者가 元來는 同一 畫幅에서 切取한 것이 아닌가 一般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圖書館의 것은 이들과는 어떨까는 지 筆者는 지금 곧 이三者를 對照하여 辨機會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專門大家의 考證을 바라며 다만 紹介만으로 그치는 바이다.

慶尙南道內의 最近出土 遺物

朴 敬 源

今春(一九六二) 以來 道內 各處에서 發見된 遺物中 蔚山에서 發見된 蓋石上에 積石이 있는 石室墓와 金海 長有面의 磨製石器와 銅鏃이 副葬된 石室墓는 附近의 支石과도 有關한 興味로운 遺蹟이므로 여기에서 出土된 遺物들을 簡略하게 紹介하고자 한다.

(1) 金海 長有面 堅穴石室과 遺物

金海郡 長有面 茂溪里 廣石部落에서 五月初旬頃 堅穴式石室 一基가 民家의 庭園整地中에 發掘되었는데 石室과 副葬品 등이 比較的 잘 保存되어 있었다.

堅穴石室... 石室의 平面은 長七·五尺 幅四尺의 넓이로 底面에는 밤자갈(栗石)을 約一寸의 두께로 깔았고 四方의 側壁은 自然石으로 싸고 天井은 自然板石 三개로 세로 並立하여 덮었다. 石室의 깊이는 計測할 수 없었으나 大略 地表面에서 三·四尺 程度였다고 하며 石室의 長軸은 正東에서 東北間으로 若干 틀어졌는데

그 東端에서 彩丹土 器一個의 破片和 石鏃 銅鏃 管玉 등이 發見되었었고 石室의 中央部位에서 磨製 石劍이 「손잡이」를 東向하여 發見되었다고 한다. 아마 屍體는 東方을 頭位로

